

# 『詩經』에 나타난 복식자료 연구(I)\*

-남자복식을 중심으로-

기전여자전문대학 전통복식과  
전임강사 김 문 숙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이 순 원

目 次	
I. 머리말	5. 袍·濯·甲
II. 복식의 종류와 분석	6. 기타
1. 裘	III. 맺음말
2. 冕服	참고문헌
3. 弁服	ABSTRACT
4. 衣裘	

## I. 머리말

시경은 원래 『詩』 또는 『詩三百』이라고 불렸던 것이 漢代 『詩經』이라 칭한 이래로 지금까지 그렇게 불리워지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 집으로서, 모두 305편의 시가 실려있고 구성은 風(15國 國風), 雅(小雅, 大雅), 頌(周頌, 魯頌, 商頌)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시경에 실린 시들은 음악, 부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風은 각 지방의 민요라고 볼 수 있고, 雅는 소위 正聲 즉 조정에서 불리던 樂調이고, 頌은 제사지낼 때 神을 頌揚하거나 조상의 은덕을 찬송하는 것이다.<sup>1)</sup>

현재의 詩經은 공자가 예의에 합당한 것을 골라

편찬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詩經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는 기원전 11세기에서 기원전 6세기 경, 즉 西周 초에서 春秋時代 중엽까지의 약 5백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5백년은 중국 노예사회가 쇠망의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 즉 嬴 왕조가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시기라 할 수 있다.<sup>2)</sup>

이 시기의 중국복식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유물자료로 木偶나 고분의 석각화, 부장품 등이 있고 문헌자료로는 『禮記』, 『周禮』, 『書經』, 『論語』, 『詩經』 등이 있는데 다른 문헌이 周代의 관복이나 상류사회의 복식생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시경은 당시 상류사회의 복식 뿐만 아니라 서민의 의생활도 노래하고 있어,<sup>3)</sup> 당시의 의생활을 보다

\* 본 논문은 1997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부설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1) 金學士 譯著, 『詩經』, 명문당, 1993, pp.23-24.  
2) 金啓華 譯注, 『詩經全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6, pp.1-2  
3) 杉本正年, 『カラスライト 東洋服飾史』, p.11

자세히 알 수 있는 문헌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경에 산재되어 있는 복식관련 낱구들을 발췌하고 이에 대한 역대 설명서를 참조하여 이들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고대 중국의 복식을 살펴보고, 분석된 복식을 통하여 당시의 복식문화를 이해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시경 전반에 묘사되어 있는 복식에 관련된 표현들을 복식의 종류별로 분류하여 각 복식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중 남자복식에 한해서 고찰하고 여자복식과 직물에 관한 내용은 후속연구로 한다.

전개방법은 1차자료로 『詩經』을 분석하고, 2차자료로는 시경의 양대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毛傳과 鄭箋의 설명서<sup>4)</sup> 그리고 宋代 朱熹가 새롭게 해석을 내린 설명서<sup>5)</sup>를 도움자료로서 활용하였다.

## II. 복식의 종류와 분석

『詩經』에 묘사되어 있는 남자복식은 裘, 冕服, 弁服, 衣裳, 袍·澤·甲, 기타로 분류되었으며 그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다.

### 1. 裘

裘는 모피로 만든 복식으로 이미 夏, 商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갑골문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따뜻함을 취하여 연거시에 착용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지낼 때에 군주와 신하가 입는 복식이었고 성인이 되어야 입을 수 있는 복식이었다.<sup>6)</sup>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 裘에는 羔裘와 狐裘에 관한 기록이 가장 많으며 그 밖에 黼衣, 狸裘, 熊羆裘가 있다.

#### (1) 羔裘

羔裘는 새끼양의 가죽을 사용해 만든 복식으로,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 羔裘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羔羊之皮 素絲五紝 / 羔羊之革 素絲五緘 / 羔羊之縫 素絲五總<sup>7)</sup>

〈國風 召南 羔羊篇〉

羔裘如濡 洵直且侯 / 羔裘豹飾 孔武有力 / 羔裘晏兮 三英粲兮<sup>8)</sup>

〈國風 鄭風 羔裘篇〉

羔裘豹祛 自我人居居 / 羔裘豹變 自我人究究<sup>9)</sup>

〈國風 唐風 羔裘篇〉

羔裘逍遙 狐裘以朝 / 羔裘翱翔

狐裘在堂 / 羔裘如晔 日出有暉<sup>10)</sup>

〈國風 檜風 羔裘〉

羔裘와 관련된 시의 내용을 종합하면 羔裘는 털을 바깥으로 하여 착용하였으며 소매에는 표범 장식을 하고 또 흰실로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羔

4) 毛傳과 鄭箋의 자료로는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영인본으로 출간된 清代에 교정을 보아 인쇄한 宋版 『十三經注疏』 本을 택하여 연구하였다.

5) 이는 성백효 譯注의 『시경집전』을 참고로 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集傳이라 약술하겠다.

6) 『禮記·內則』 “二十而冠始學禮 可以衣裳帛”

7) “염소 털가죽을 흰실 다섯 타래로 꾸몄네 / 염소 안가죽을 흰실 다섯겹으로 꿰맸네 / 염소 가죽을 흰실 다섯겹으로 꾸몄네” 이하 해석은 김학주 역자의 『詩經』을 참조하였음.

8) “염소 가죽은 윤기가 나니 정말 부드럽고 아름답네 / 염소가죽에 豹皮로 소매깃을 하니 정말 늠름하고 힘있네 / 염소 가죽은 산뜻하고 세가지 장식이 선명하네”

9) “염소가죽에 표범가죽 소매로 우리 백성을 악독하게 부리네 / 염소가죽에 표범가죽 소매로 우리 백성을 지독하게 부리네”

10) “염소가죽 입고 노닐다간 여우 가죽 입고 조회보시네 / 염소가죽 입고 왔다갔다 하다가 여우가죽 입고 공당에 계시네 / 염소가죽은 윤기홀려 햇빛에 번쩍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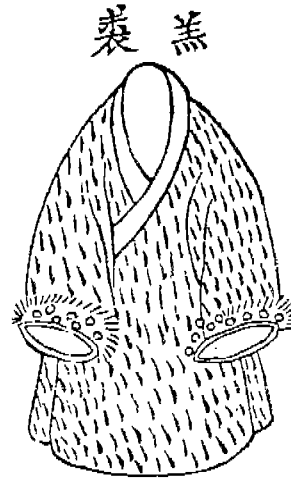
裘에 대한 “羔裘는 大夫의 옷이다<sup>11)</sup>”, “大夫는 언거시 羔裘를 입는다<sup>12)</sup>”, “緇衣羔裘는 諸侯의 朝服이다<sup>13)</sup>” 등의 설명으로 보아 당시 羔裘는 大夫의 복식이고 緇衣와 함께 착용시에는 諸侯의 朝服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國風 召南 羔羊篇의 素絲五紵·素絲五緇·素絲五總은 素絲 즉 흰실로 羔裘를 장식한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五紵·五緇·五總은 모두 여러 겹의 실을 모아 놓은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는 羔裘에 흰실로 끈을 만들어 술기의 가운데에 드리워 꽃모양으로 장식을 만들고 그 경계에 꿰매는 선이 있고 술기의 아래와 위의 차이나는 것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 그 위에 흰실을 대는 장식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sup>14)</sup> 또한 『毛詩正義』에 “素絲는 莢飾이다<sup>15)</sup>”라고 있고 『시경집전』에 “三莢은 裘의 장식이다”라고 있는데 三莢은 三德이고 鄭箋에 “三德이란 剛克, 柔克, 正直이다<sup>16)</sup>”라고 있으므로, 흰실로 裘를 장식하는 것은 內面的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

國風 唐風 羔裘篇에 묘사된 羔裘豹袪·羔裘豹綈의 기록은 당시 羔裘의 소매를 표범가죽으로 장식했음을 알게하는 것으로 소매에 표범가죽을 장식하는 것은 그것을 착용한 사람이 용맹하여 난을 평정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한다.<sup>17)</sup> 일반적으로 천자와 제후의 裘는 雉裘를 사용하고 소백 장식을 가하지 않았으며 그 아래 卿, 大夫는 표범

가죽으로 소매끝을 장식하였다.<sup>18)·19)</sup> 그 밖에 羔裘如濡·羔裘如冱와 같은 구절을 통해 裘는 털을 밖으로 하여 입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菴子가 羔裘를 착용한 것은 밖으로는 羔羊으로 만든 裘를 입고 안으로는 羔羊의 德을 입는다는 의미였다.<sup>20)</sup> (그림 1)



(그림 1) 羔裘  
原本詩傳, p.36

(2) 狐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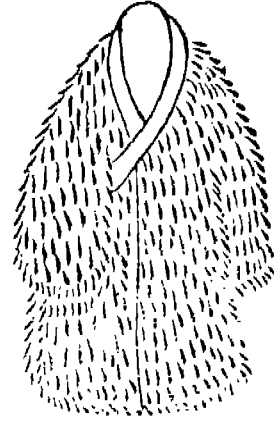
狐裘는 여우의 가죽을 이용하여 만든 복식으로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 狐裘에 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11) 『시경집전』, 신백효 譯注, 전통문화연구회, 1993, p.194. “羔裘 大夫服也”  
 12) 『毛詩正義』, 上海古籍出版社, 1990, p.56. 召南 羔羊篇, “大夫羔裘以居”  
 13) 『毛詩正義』 鄭風 羔裘篇, p.167 “箋云 緇衣羔裘 諸侯之朝服也”  
 『毛詩正義』 檜風 羔裘篇, p.261 “箋云 諸侯之朝服 緇衣羔裘”  
 14) 정복남, “중국복식에서 裘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p.40.  
 15) 『毛詩正義』, p.56 “素絲爲莢飾”  
 16) 『毛詩正義』 鄭風 羔裘篇, p.167 “三莢三德也 箋云 三德 剛克 柔克 正直也”  
 17) 『毛詩正義』 鄭風 羔裘篇, p.167 “豹飾緣以豹皮也”  
 疏 “正義曰 言古之君子服羔皮爲裘以豹皮爲袖飾者 其人甚武勇且有力可禦亂也”  
 18) 『毛詩正義』 唐風 羔裘篇, p.223 “箋云 羔裘豹袪在位卿大夫之服也”  
 『시경집전』, p.259 “羔裘 若純羔 大夫以豹飾”  
 19)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戲劇出版社, 1986, p.51.  
 20) 『毛詩正義』 召南 羔羊篇, p.56 “外服羔羊之裘內有羔羊之德”

狐裘蒙戎 匪車不東<sup>21)</sup> <國風 邶 旄丘篇>  
 君子至止 錦衣狐裘<sup>22)</sup> <國風 秦風 終南>  
 羔裘逍遙 狐裘以朝 / 羔裘綈綈 狐裘在堂<sup>23)</sup>  
 <國風 檜風 羔裘>  
 彼都人士 狐裘黃黃<sup>24)</sup> <小雅 魚藻之什 都人士>

衣와 함께 입었다고 한다.<sup>30)</sup> (그림 2)

裘狐



(그림 2) 狐裘  
 原本詩傳, p.36

시경 속의 狐裘에 대한 묘사를 종합해 보면 호구는 누런색을 띠며 錦衣와 함께 착용하는 군자의 복식으로서 조회시에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겨울에는 狐裘을 착용한다<sup>25)</sup>”, “大夫는 狐蒼裘를 착용한다<sup>26)</sup>”, “錦衣狐裘는天子에게 조회할 때의 복장이다<sup>27)</sup>”, “錦衣狐裘는 諸侯의 복식이며 錦衣는 楊衣로서 착용한다<sup>28)</sup>”는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狐裘는 羔裘와 함께 겨울에 착용하던 것이며 그 위에 錦衣를 가하여 제후의 조회시 복장으로도 착용하였고 신분에 따라 그 색이 달랐음도 알 수 있는데,天子는 狐白裘를, 諸侯는 狐黃裘를, 大夫는 狐蒼裘를, 士는 羔裘를 착용하였다.<sup>29)</sup> 또한 楊衣는 狐裘 뿐만이 아니라 다른裘를 착용할 때도 입던 것으로, 즉裘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그 위에 입는 옷과 색깔을 같게 하였는데 諸侯가 朝會시 羔裘를 착용할 때는 검은 옷인 緇衣와 함께 입고 천자를 조알할 때 입는 狐裘는 누런 옷인 錦

(3) 緇衣, 狸裘, 熊羆裘

羔裘와 狐裘 외에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裘에는 緇衣, 狸裘, 熊羆裘가 있다. 狸裘는 너구리의 가죽으로 만든裘이고 熊羆裘는 곰의 가죽으로 만든裘을, 緇衣는 기타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 만든裘을 말한다.

大車檻檻 緇衣如蒺 / 大車啍啍 緇衣如璫<sup>31)</sup>

<國風 王風 大車>

21) “여우갓옷도 너털너털해졌는데 그들의 수레는 동쪽으로 오지 않네”  
 22) “우리 님이 오셨는데 비단옷에 여우갓옷”  
 23) “염소갓옷 입고 노닐다간 여우갓옷 입고 조회보시네 / 염소갓옷 입고 왔다갔다 하다간 여우갓옷 입고 공당에 계시네”  
 24) “저 서울 양반은 누런 여우갓옷 입으셨네”  
 25) 『毛詩正義』 小雅 魚藻之什 都人士, p.509 “冬則衣狐裘”  
 26) 『시경집전』, p.102 “大夫狐蒼裘”  
 『毛詩正義』 邶 旄丘篇, p.93 上同  
 27) 『시경집전』, p.305 “緇衣羔裘 諸侯之朝服 錦衣狐裘 其朝天子之服也”  
 28) 『毛詩正義』 秦風 終南, p.241. “錦衣彩色也 狐裘朝廷之服 箋云 至止者受命服於天子而來也 諸侯狐裘錦衣以楊之”  
 『시경집전』, p.279 “錦衣狐裘 諸侯之服也 玉藻曰 君衣狐白裘 錦衣以楊之”  
 29) 『白虎通義』 p.364-365, “士 天子狐白 諸侯狐黃 大夫狐蒼 士羔裘 赤因別尊卑也”  
 정복남, 앞논문, p.35 재인용.  
 30) 정복남, 앞논문, p.36  
 31) “큰 수레가 덜컹덜컹 가는데 부드러운 파란 털옷 입은 이 님네 / 큰 수레가 덜컹덜컹 가는데 부드러운 붉은 구슬빛 털옷 입은 이 님이 가네”

一之日于貉 取彼狐狸 爲公子裘<sup>32)</sup> 〈國風 爾風 七月〉  
舟人之子 熊羆是裘<sup>33)</sup> 〈小雅 谷風之什 大東〉

시의 내용으로부터 裘衣는 여러가지 동물 가죽을 염색하여 만든裘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毛詩正義』에 “裘衣는 大夫의 옷으로 鄭玄이 말하길 옛날에는 天子와 大夫가 순방을 나갈 때 裘冕을 착용하며 裘衣에는 衣와 裳이 있으며 모두 五色이다<sup>34)</sup>”라고 있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鄭玄이 말한 裘冕은 冕服의 일종으로 子男의 복식이며 五旒冕을 착용하는 것이다.<sup>35)</sup>

한편 狸裘와 熊羆裘는 羔裘, 狐裘 외에 군자가 착용하던裘의 일종으로 『毛詩正義』에 “여우와 이리는 가죽이 두꺼워 몹시 추운 겨울날에裘로 입는다”,<sup>36)</sup> “熊羆로裘를 만드는데 부유함을 나타낸다”<sup>37)</sup>라고 있어 狸裘와 熊羆裘 역시 부유한 사람들이 겨울에 착용한裘의 일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裘의 종류에는 羔裘, 狐裘, 狸裘, 熊羆裘, 裘衣가 있으며 이는裘에 사용된 재료에 따른 명칭이다. 착용방법은 동물의 털을 밖으로 하여 입었고 털의 색을 염색하기도 하였다.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裘는 일반서민의 복식이라기 보다는 부유한 계층의 군자의 복식으로 특히 狐裘는 錦衣와 함께 조회시에 착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冕服

시경에서 면복과 관련된 묘사가 포함되어 있는 시구는 모두 20편으로 이 중에는 冕服에 갖춰 입는 玄衣纁裳, 中單과 면복의 부속품인 充耳, 烏,

芻, 圭등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1) 玄衣纁裳

면복의 특징은 상하구별이 있는 것으로 즉 상의로는 玄衣를 착용하고 하의로는 纁裳을 착용하는데(그림 3), 시경에 묘사된 玄衣纁裳과 관련된 시구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冕服  
5000 Year, of Chinese Costumes, p.34

豈曰無衣七兮 不如子之衣 / 豈曰無衣六兮  
不如子之衣 〈國風 唐風 無衣〉  
君子至止 黻衣纁裳 / 佩玉將將 壽考不忘  
〈國風 秦風 終南〉  
我覯之子 衰衣纁裳 / 是以有衰衣兮  
無以我公歸兮 〈國風 爾風 九罭〉  
又何子之 玄衰及綹 〈小雅 魚藻之什 采芣〉  
厥作裸將 常服黻裳 〈大雅 文王之什 文王〉  
玄衰赤烏 〈大雅 蕩之什 韓奕〉

32) “등지달엔 짐승사냥하는데 여우와 살쥍이 잡아 공자님 갖옷 지어 드린다네”  
33) “쫄나라 사람들은 곰이나 말곰갖옷 입고”  
34) 『毛詩正義』王風 大東, p.152 “裘衣大夫之服 箋云 占者 天子大夫服 裘冕以巡行邦國… 裘衣之屬 衣糸貴而裘纁 皆有五色焉”  
35) 『中國服飾大辭典』, 山西人民出版社, 1992, p.149  
36) 『毛詩正義』爾風 七月, p.282 “于貉謂取狐狸皮也 狐貉之厚 以居孟冬天子始裘”  
37) 『毛詩正義』小雅 谷風之什 大東, p.438 “熊羆是裘 言當也”

위 시에서 無衣七兮, 無衣六兮는 면복에 놓여진 장문의 수를 말하는 것으로 즉 七章服, 六章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毛詩正義』에서도 “侯伯의 예는 七命이고 그 면복은 七章服이다.”<sup>38)</sup> “卿은 六命이다”<sup>39)</sup>라고 있어 계급에 따라 장문의 수가 다른 면복을 착용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衣裳에 章紋을 베푸는 것은 면복의 특징 중 하나로, 이 章紋은 신분에 따라 그 수가 달라지며 帝王 면복의 경우는 玄衣纁裳에 十二章紋<sup>40)</sup>을 베풀고 일반적으로 상의의 문양은 그림으로, 하의의 문양은 수를 놓는다.<sup>41)</sup>

그 밖에 黻衣繡裳, 袞衣繡裳, 玄袞及黼, 黼黻 모두 검은 색의 上衣와 수를 놓은 纁裳을 묘사한 것으로, 黻衣繡裳은 黻<sup>42)</sup>을 그려넣은 衣와 수를 놓은 裳을 의미하고 袞衣繡裳은 검은색 상의와 수를 놓은 裳이라는 의미이며, 玄袞及黼는 玄衣와 黼文을 수놓은 裳을 의미한다.

위 시구에 대해 『毛詩正義』와 『시경집전』에서는 “黻은 黑과 青으로 구성되며 五色이 갖추어진 것이 黼이다<sup>43)</sup>”, “袞衣에는 卷龍을 그린다. 鄭箋에 天子는 升龍을 그리고 上公은 降龍을 그린다<sup>44)</sup>”, “玄袞은 卷龍이다. 白과 黑이 黼를 이룬다. 鄭箋에 諸公은 袞冕 이하를 착용하고 侯伯은 黻冕 이하를, 子男은 黼冕 이하를 착용하며 王이 사여한 문장만을 쓸 수 있다<sup>45)</sup>”, “黼는 黼文을 수놓은 裳을 말하며 黻는 殷나라의 冠이다<sup>46)</sup>”라고 하여 黻文의 형태와

裳에 수놓는 색의 수를 설명하고 또 袞衣 즉 玄衣에 그려지는 龍의 모양이 등갈게 말린 형태로 신분에 따라 龍의 升降에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黼는 裳에 수놓은 부늬이며 면복은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黼黻의 黻는 殷의 冕冠으로 제사지낼 때 쓰던 관모이다<sup>47)</sup>(그림 4).



(그림 4) 黻  
原本詩傳, p.36

이상과 같이 玄衣纁裳은 면복의 기본 복식으로 검은색 상의와 붉은색 하의를 말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계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문양을 그리거나 수놓았음을 시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中單

시경에는 면복의 玄衣纁裳 안에 갖춰입는 복식인 中單이 아래의 시에 묘사되어 있다.

38) 『毛詩正義』 唐風 無衣, p.225 “侯伯之禮七命 冕服七章”

39) 『毛詩正義』 唐風 無衣, p.225 “天子之卿六命”

40) 十二章紋이란 日, 月, 星辰, 山, 龍, 華蟲, 宗彝, 藻, 火, 粉米, 黼, 黻을 말한다.

41) 上海市 戲曲學校 中國服飾史 研究組 編著, 『中國歷代服飾』, 學林出版社, 1983, p.9

42) 黻文이란 두 개의 巳가 서로 등을 지고 있는 모양을 말한다.

周錫保, 앞책, p.16

43) 『毛詩正義』 秦風 終南, p.242. “黑與青謂之黻 五色備謂之黼”

44) 『毛詩正義』 豳風 九罭, p.301 “袞衣卷龍也 箋云 天子畫升龍於衣 上公但畫降龍”

45) 『毛詩正義』 小雅 魚藻之什 采芣, p.499

“玄袞卷龍也 白與黑謂之黼 箋云 玄袞玄衣而畫以卷龍也 諸公之服 自袞冕以下 侯伯自黻冕以下 子男自黼冕以下 王之賜維用有文章者”

46) 『시경집전』 2권, p.194 “黼黼裳也 昀 殷冠也”

47) 周錫保, 앞책, p.49

素衣朱襮 從子于沃 / 素衣朱繡 從子于鵠

〈國風 唐風 揚之水〉

素衣朱襮과 素衣朱繡는 모든 붉은색 깃이 달린 흰색 衣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毛詩正義』에서는 “襮은 깃이다. 諸侯는 中衣에 丹朱色으로 黼를 수놓는다<sup>48)</sup>”라 있고, 『시경집전』에서는 “襮은 깃이다. 諸侯의 복식으로 깃에 黼를 수놓고 丹朱色으로 선을 두른다<sup>49)</sup>”라고 있는데, 素紗中單의 깃에 黼紋을 수놓는 것은 면복이므로 이 깃구가 면복의 중단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充耳·佩玉·芾·烏·圭

시경에는 면복으로 착용하는 玄衣纁裳, 素紗中單 외에 그 부속품인 充耳, 佩玉, 芾, 烏, 圭에 대한 묘사가 있다. 먼저 充耳를 묘사한 시는 아래와 같다.

俟我於蒼乎而 充耳以素乎而 / 尚之以瓊華乎而  
/ 俟我於庭乎而 充耳以青乎而 / 尚之以瓊瑩乎而  
/ 俟我於堂乎而 充耳以黃乎而 / 尚之以瓊英乎而  
〈國風 齊風 著〉

充耳는 면류관에서 귀의 가장자리에 매달아 양귀에 드리우는 주옥으로 이는 가벼운 믿음과 중상 모략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인데,<sup>50)</sup> 위 시에서 묘사

된 充耳는 素色, 青色, 黃色으로 끈을 하고 거기에 각각 瓊華, 瓊瑩, 瓊英의 주옥을 매달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毛詩正義』에서는 “鄭箋에 흰색으로 充耳를 이룬다는 것은 瓊을 매다는 줄, 즉 紃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은 五色, 신하는 三色이다<sup>51)</sup>”, “瓊華·瓊瑩·瓊英은 紃의 끝에 다는 璫이다<sup>52)</sup>·<sup>53)</sup>·<sup>54)</sup>”, “鄭箋에 靑은 청색 紃이다<sup>55)</sup>”, “鄭箋에 黃은 황색 紃이다<sup>56)</sup>”라고 하여 시에 묘사된 瓊華·瓊瑩·瓊英이 充耳의 끝에 매다는 璫이고 이 璫을 매다는 素色, 靑色, 黃色의 끈이 紃이 됨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시경에는 면복 외에도 充耳를 늘인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sup>57)</sup> 充耳가 면복에만 사용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衛風 淇奥〉의 充耳琇瑩에 대해 『毛詩正義』에서 “充耳는 璫이라 한다. 琇瑩은 아름다운 돌이다. 天子는 玉으로 璫을 하고 諸侯는 돌로 한다<sup>58)</sup>”라고 하여 充耳도 계급에 따라 그 재료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佩玉에 대한 묘사로 모두 6편의 시가 해당된다.

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 / 投我以木桃  
報之以瓊瑤 / 投我以木李 報之以瓊玖

〈國風 衛風 木瓜〉

彼留之子 貽我佩玖 〉國風 王風 丘中有麻

知子之來之 雜佩以贈之 / 知子之順之  
雜佩以問之 / 知子之好之 雜佩以報之

48) 『毛詩正義』唐風 揚之水, p.217 “襮領也 諸侯繡黼 丹朱中衣”

49) 『시경집전』上, p.253 “諸侯之服 繡黼領而丹朱純也”

50) 『中國歷代服飾』, 앞책, p.9

51) 『毛詩正義』齊風 著, p.188

“箋云 以素爲充耳謂所以懸纁者 或名爲紃織之人若五色 臣則三色”

52) 『毛詩正義』齊風 著, p.188 “箋云 飾之以瓊華者 謂懸紃之末 所謂璫也 人君以玉爲瓊華”

53) 『毛詩正義』齊風 著, p.189 “瓊瑩石似玉 大夫之服也”

54) 『毛詩正義』齊風 著, p. “瓊英美石 似玉者 人君之服也 箋云 瓊英猶瓊華也”

55) 『毛詩正義』齊風 著, p.189 “箋云 靑 紃之靑”

56) 『毛詩正義』齊風 著, p.189 “箋云 黃 紃之黃”

57) 『시경』衛風 淇奥 “有匪君子 充耳琇瑩 會弁如星”

小雅 魚藻之什 都人士 “彼都人士 充耳琇瑩”

58) 『毛詩正義』衛風 淇奥, p.126 “充耳謂之璫 琇瑩美石也 天子玉璫 諸侯以石”

〈國風 鄭風 女曰雞鳴〉

青青子佩 悠悠我思 〈國風 鄭風 子衿〉

我送舅氏 悠悠我思 何以贈之 瓊瑰玉佩

〈國風 秦風 渭陽〉

服其命服 朱芾斯皇 有玼葱珩

〈小雅 南有嘉魚之什 采芣〉

위 시에서 밑줄친 부분의 瓊璠, 瓊瑤, 瓊玖, 佩玖, 雜佩, 佩, 瓊瑰玉佩, 葱珩은 모두 佩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毛詩正義』에서는 “佩는 佩玉을 의미하고 선비는 瑤珉과 青組綬를 패용한다”<sup>59)</sup>라 하고 또한 瓊·瓊瑤·瓊玖·佩玖는 모두 美玉이며<sup>60)·61)·62)</sup> 玼는 佩玉을 구성하는 부분의 명칭이고<sup>63)</sup> 瓊瑰는 옥에 다음가는 돌로<sup>64)</sup> 역시 佩玉의 종류라 하였고 雜佩는 佩玉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毛詩正義』와 『시경집전』에서 설명하고 있다<sup>65)</sup>(그림 5).

다음은 芾에 관한 묘사로 시경에는 모두 4편에 묘사되어 있다.

服其命服 朱芾斯皇 〈小雅 南有嘉魚之什 采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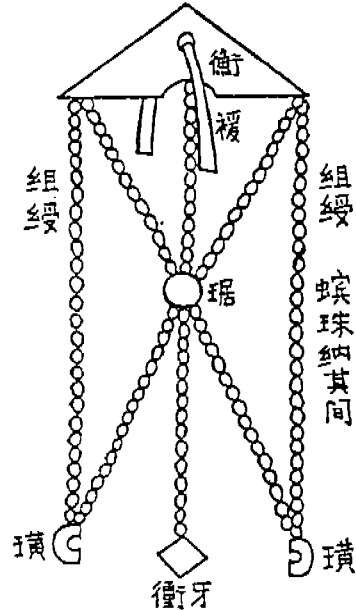
載衣之裳 載弄之璋 其泣嗚嗚 朱芾斯皇

〈小雅 鴻雁之什 斯干〉

赤芾在股 邪幅在下 〈小雅 魚藻之什 采芣〉

赤芾金鳥 會同有繹 〈小雅 南有嘉魚之什 車攻〉

芾은 면복의 繡裳 앞에 가하는 폐슬을 말하는 것으로 시경에는 위와 같이 朱芾, 赤芾이 묘사되



(그림 5) 佩玉  
中國古代服飾史, p.44

어 있으며 또 芾 아래에 착용하는 邪幅에 대한 묘사도 있다. 이에 대해 『毛詩正義』에는 “朱芾은 黃朱色 芾이다<sup>66)</sup>”, “諸侯는 赤芾이고 邪幅에서 幅은 각반을 말한다. 鄭箋에 芾은 옛날의 폐슬의 모습이다. 면복은 芾이라고 말한다. 그 밖의 복식에서는 鞶이다. 가죽으로 만드는데 윗너비가 1척, 아랫너비가 1척, 길이는 3척, 그頸이 5촌, 어깨에 매는 혁대의 너비가 2촌이다. 邪幅은 오늘날의 行膝과 같다. 발부터 무릎까지 그 종아리를 묶어주는 것

59) 『毛詩正義』 鄭風 子衿, p.178 “佩 佩玉也 士佩瑤珉而青組綬”

60) 『毛詩正義』 衛風 木瓜, p.140 “瓊 玉之美者”

61) 『毛詩正義』 上同, p.140 “瓊瑤美玉”

62) 『毛詩正義』 上同, p.140 “瓊玖玉名”

63) 『毛詩正義』 衛風 木瓜, p.140 “玼 佩玉名”

64) 『毛詩正義』, p.245 “瓊瑰 石而次玉”

65) 『毛詩正義』 鄭風 女曰雞鳴, p.169 “雜佩者 玼瑀瑀瑀衛牙之類”

『시경집전』 上, p.198 “雜佩者 左右佩玉也 上橫曰珩 下繫三組 貫以瑀珠 中組之半 貫一大珠 曰瑀 末懸一玉 兩端皆銳 曰衛牙 兩旁組半 各懸一玉 長博而方 曰玼 其末 各懸一玉 如半璧而內向 曰瑀 又以兩組貫珠 上繫玼 兩端 下交貫於瑀而下繫於兩瑀 行則衛牙觸瑀而有聲也”

66) 『毛詩正義』 小雅 南有嘉魚之什 采芣, p.360 “朱芾 黃朱芾也”



이다<sup>67)</sup>”라 있고, 『시경집전』에는 “赤芾은 諸侯의 복식이다<sup>68)</sup>”, “天子는 純朱色 芾이고 諸侯는 黃朱色이다<sup>69)</sup>”라 하여 芾이 폐슬의 옛 모습이고 면복에 착용하는 폐슬을 芾이라 하며 그 밖의 복식에 서는 鞞이라 부르고 諸侯는 黃朱色の 赤色, 天子는 純朱色이며 芾 아래에 행전과 같은 邪幅을 한 모습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면복에 착용하는 烏에 대한 묘사가 들어 있는 시구이다.

赤芾金烏 會同有繹 <小雅 南有嘉魚之什 車攻>  
 玄衮赤烏 <大雅 蕩之什 韓奕>  
 公孫碩膚 赤烏几几 <國風 爾風 狼跋>

위와 같이 시경에는 金烏과 赤烏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毛詩正義』와 『시경집전』에서 “赤烏은 임금의 성장차림의 신이다<sup>70)</sup>”, “赤烏은 면복의 신이다<sup>71)</sup>”라고 하여 赤烏이 당시의 신 중에서 최고의 것임을 알 수 있다. 周代 황제의 烏에는 백색, 흑색, 적색 세 종류의 색이 있었다. 그 중 적색은 강한 태양의 색으로 태양이 밝음을 표현한다는 의미가 있다. 烏의 재료는 주단(綢緞)을 많이 사용하였다.<sup>72)</sup> 金烏에 대해서는 『시경집전』에 “金烏은 赤烏에 금장식을 가한 것으로 역시 諸侯의 복식이다<sup>73)</sup>”라 있어 金烏이 면복에 착용하는 烏 중 최상인 赤烏에 金飾을 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면복을 착용할 때 손에 잡는 圭에 관한

묘사이다.

韓侯入覲 以其介圭 <大雅 蕩之什 韓奕>

이 介圭에 대해서는 『시경집전』에 “介圭는 奉圭이니 잡고 폐백으로 삼아 왕과 瑞玉을 합하는 것이다<sup>74)</sup>”라고 있어 圭를 잡음으로써 왕에게 예의를 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 면복에는 면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玄衣纁裳과 그 안에 착용하는 중단 그리고 부속품으로서 充耳, 佩玉, 芾, 烏, 圭가 있다. 현의 혼상은 계급에 따라 장문의 수를 달리하고 문양의 형태도 달리하였으며 그 안에는 흰색에 붉은색 깃을 단 중단을 착용하고 여기에 充耳, 佩玉, 芾, 烏, 圭와 같은 각종 장식을 가한 것이다.

### 3. 弁服

弁服은 冕服 다음가는 일종의 예복이었다. 弁은 일종의 禮帽로 皮弁, 爵弁, 冠弁, 韋弁 등이 있다.<sup>75)</sup>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 면복에 관련된 시는 모두 5 편으로 다음과 같다.

有匪君子 充耳琇瑩 會弁如星 <國風 衛風 淇奥>  
 淑人君子 其帶伊絲 其帶伊絲 其弁伊騏 <國風 曹風 鳴鳩>  
 四牡騤騤 載是常服 <小雅 南有嘉魚之什 六月>

67) 『毛詩正義』小雅 魚藻之什 采芣, p.500

“諸侯赤芾 邪幅 幅偏也 所以自信東也 箋云 芾 大古蔽膝之象也 冕服謂之芾 其他服謂之鞞 以革爲之 其制 上廣一尺 下廣二尺 長三尺 其頸五寸 肩革帶博二寸 脛本曰股 邪幅 如今行際也 自信其脛自足至膝”

68) 『시경집전』 권1, p.416 “赤芾 諸侯之服”

69) 『시경집전』 권1, p.30 “芾天子純朱 諸侯黃朱”

70) 『毛詩正義』, p.303 “赤烏 人君之盛服也”

71) 『시경집전』上, p.346 “赤烏 冕服之烏也”

72) 『中國歷代服飾』, 앞책, p.13

73) 『시경집전』 권1, p.416 “金烏 赤烏而加金飾 亦諸侯之服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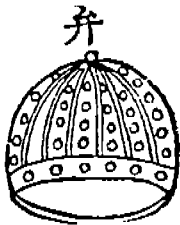
74) 『시경집전』 권2, p.330 “介圭封圭 執之爲贊 以合瑞于王也”

75) 『中國服飾大辭典』, p.130

韎袷有爽 以作六師 <小雅 甫田之什 瞻彼洛矣>  
 絲衣其紕 載弁侏侏”：  
 <周頌 閔予小子之什 絲衣>

먼저 會弁如星은 弁의 구슬 장식이 별처럼 빛난다는 의미로 『毛詩正義』에 “머리를 모으므로 皮弁이 弁이다. 鄭箋에 會는 弁의 봉제선에 장식된 玉이며 아름답게 놓여진 모양이 별과 같다. 天子의 朝服으로 皮弁으로 조례시 착용한다<sup>76)</sup>”라고 있어 여기서의 弁이 조례시에 착용하는 皮弁服임을 알 수 있다. 其帶伊絲 其弁伊駟는 실로 된 띠를 매고 弁에는 구슬을 달았다는 의미로 이 역시 『毛詩正義』에 “弁은 皮弁이다. 鄭箋에 其帶伊絲는 大帶를 말하며 大帶는 素絲를 사용하고 雜色으로 장식한다<sup>77)</sup>”라고 하여 皮弁服을 묘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皮弁은 양 손을 서로 합한 모양으로 흰 사슴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 봉합선에 玉으로 장식하는데 天子는 五采玉 12개로 장식하고 諸侯 이하는 그 命한 수에 따라 옥으로 장식한다.<sup>78)</sup> (그림 6)

常服은 군복의 의미로 『毛詩正義』에 “常服은 戎服으로 韋弁服이 된다<sup>79)</sup>”라 하였고, 韎袷은 붉은 가죽으로 된 군복으로 『毛詩正義』에는 “韎袷은 茅蒐草로 염색한다. 韎을 대신하므로 韎袷이라 한다<sup>80)</sup>”라 있고, 『시경집전』에는 “韎는 茅蒐로 염색한



(그림 6) 皮 弁  
 原本詩傳, p.36

弁 韋



(그림 7) 韋弁服  
 三才圖會, p.1495

弁 爵



(그림 8) 爵弁服  
 三才圖會, p.1495

76) 『毛詩正義』 衛風 淇奥, p.126

“皮弁弁 所以會髮 箋云 會謂弁之縫中飾之以玉 礫礫而處狀似星也 天子之朝服 皮弁以日視朝”

77) 『毛詩正義』, p.270 “弁皮弁也 箋云 其帶伊絲 謂大帶也 大帶用素絲 有雜色飾焉”

78) 周錫保, 앞책, p.47.

79) 『毛詩正義』, p.356 “常服 戎服也” “箋云 常服 韋弁服也”

80) 『毛詩正義』 小雅 瞻彼洛矣, p.477 “韎袷者 茅蒐染草也 一曰韎袷 所以代譯也”

것이다. 衾은 鞞이다. 가죽을 합해 만들고 周官에는 韋弁이라 하였고 兵事의 服飾이다<sup>81)</sup>”라고 있어 常服과 韋衾이 모두 韋弁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韋弁服은 韋로 弁과 衣裳을 만들고 색은 모두 적색인데 이는 韋가 茅蒐草를 사용해 염색한 적색을 띠기 때문이다<sup>82)</sup> (그림 7).

〈周頌 絲衣〉에 묘사되어 있는 絲衣와 弁에 대해 『毛詩正義』에서는 “絲衣는 祭服이다. 鄭箋에 弁은 爵弁이다. 爵弁으로 왕에게 제사지낸다. 士의 복식이다<sup>83)</sup>”라고 하여 絲衣와 弁을 爵弁服으로 설명하고 있다. 爵弁은 형제가 冕과 같으나 瑠가 없으며 冕 다음가는 예복이다. 爵弁을 쓴 자는 絲衣(純衣 즉 玄衣)와 纁裳을 입는데 다만 章紋이 없는 특징을 지니며 冕服의 紕 대신 韋를 사용하였고 士<sup>84)</sup>가 임금을 도와 제사지낼 때의 복식이다. (그림 8)

이상과 같이 시경에는 弁服 중 皮弁服, 韋弁服, 爵弁服이 묘사되어 있어 그 형태를 알 수 있게 한다.

#### 4. 衣裳

중국 고대 복식의 기본형제는 衣裳으로 복방계 민족의 기본복식 형제인 衣袴와 대비되는 것이다. 시경에는 이 衣裳에 관한 묘사가 많이 보이는데 중국에서 착용된 衣裳의 형제에는 上衣와 下裳이 분리된 형태의 것과, 上衣와 下裳이 연결된 형태의 것 즉 深衣의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시경에서 上衣와 下裳이 묘사된 시는 모두 9편인데 단편적인 서술만으로 衣裳을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내용상의 공통점에 의해 평상복으로 착용

된 5편, 관복으로 착용된 3편, 그리고 상하연결된 심의 1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평상복으로 착용된 衣裳이 묘사된 5편의 시구는 다음의 것이 있다.

心之憂矣 之子無裳 / 心之憂矣 之子無帶 /  
 心之憂矣 之子無服 <國風 衛風 有狐>  
 摻摻女手 可以縫裳 / 妾之禰之 好人服之 <國風 魏風 葛屨>  
 豈曰無衣 與子同裳 <國風 秦風 無衣>  
 蜉蝣之羽 衣裳楚楚 / 蜉蝣之翼 采采衣服 /  
 蜉蝣掘闔 麻衣如雪 <國風 曹風 蜉蝣>  
 七月流火 九月授衣 / 無衣無褐 何以卒歲 /  
 七月流火 九月授衣 <國風 邶風 七月>

위 시구 중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모두 상하가 분리된 衣와 裳을 묘사하고 있으며, 〈衛風 有狐〉의 無帶라는 귀절을 통해 보면 衣裳의 허리에 帶를 띤 것을 확인할 수 있고, 〈魏風 葛屨〉의 妾之禰는 『시경 집전』에 “繫는 치마허리이고 禰는 衣의 깃이다<sup>86)</sup>”라고 있어 치마허리를 뜻하는 繫와 옷의 깃을 뜻하는 禰이라는 용어가 있음이 확인된다.

관복으로 착용된 衣裳을 묘사한 것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緇衣之宜兮 敝予又改爲兮 / 緇衣之好兮  
 敝予又改造兮 / 緇衣之蓆兮 敝予又改作兮 <國風 鄭風 緇衣>  
 東方未明 顛倒衣裳 <國風 齊風 東方未明>  
 庶見素冠兮 棘人櫛髮兮 / 庶見素衣兮  
 我心傷悲兮 / 庶見素禪兮 我心蘊結兮 <國風 素冠>

81) 『시경집전』 下, p.138 “韋 茅蒐 所染色也 韋 鞞也 合韋爲之 周官所謂韋弁 兵事之服也”

82) 周錫保, 앞책, p.48

83) 『毛詩正義』 周頌 閔予小子之什 絲衣, p.750

“絲衣祭服也 箋云 弁爵弁也 爵弁而祭於王 士服也”

84) 士란 公卿大夫와 서민의 중간계층을 말한다.

85) 周錫保, 앞책, p.47

86) 『시경집전』 上, p.235 “要裳要 禰衣領”

즉 緇衣는 『毛詩正義』에 “緇는 黑色이다. 卿士가 廳朝시 착용하는 正服이다<sup>87)</sup>”라고 하여 朝服으로 착용되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복식이 朝事服으로 착용하던 玄色의 元端이 아닐까 생각된다. 元端은 上衣下裳의 형태로서 소위 번복의 일종인데,<sup>88)</sup> 周 이전 三代의 의복제로 국가의 法服이고 위로는 天子, 아래로는 士大夫 모두가 착용한 복식이다. 이는 면복을 제외할 때 그 용도가 가장 광범위한 복식 중 하나인데, 즉 천자의 연거복이고 諸侯는 종묘에 제사지낼 때 이 옷을 입고 大夫와 士는 朝事服으로, 또 종묘에 제사지낼 때 착용하였다. 그러나 위 시의 緇衣가 元端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후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齊風 東方未明〉의 衣裳 역시 “동녘이 밝지도 않았는데 옷을 거꾸로 입네. 거꾸로 입는 것은 임금님 처소에서 부르기 때문<sup>89)</sup>”이라는 시의 내용상 관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檜風 素冠〉에서의 衣裳 역시 머리에 관을 쓰고 허리에 폐술을 착용한 점을 보아 평상복의 衣裳 차림이기 보다는 정장 차림의 衣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毛詩正義』와 『시경집전』에서 “素冠은 정련해 만든 冠이다<sup>90)</sup>”, “縹冠과 素紕는 大祥을 지낸 冠이다. 경사를 黑으로 하고 위사를 白으로 한 것을 縹라고 부르며 가장자리에 두른 선을 紕라 한다<sup>91)</sup>”, “素冠이므로 素衣이다. 鄭箋에 喪을 다한 자를 제외하면 제사에는 朝服에 縹冠이다. 朝服은 緇衣 素裳이므로 素衣는 素裳을 말하는 것이다<sup>92)</sup>”, “鄭箋에 大祥을 지낸 제사에는 朝服과 素纁을 입는데

縹는 裳色을 따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여 이 시에 묘사된 복식이 大祥을 치른 남자의 상복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복식은 朝服에 縹冠이라 하여 元端에 縹冠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衣裳은 중국의 기본복제로서 周代 이전에는 대개 小袖로 길이는 무릎정도이며 領, 袖, 緣 등을 花紋이나 黼黻紋, 雷紋 등으로 장식하였고 귀족남자의 경우에는 帶 아래에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도끼모양의 장식 즉 폐술을 늘였다. 周代가 되면 衣袖에 大小 2가지가 생기고 길이는 무릎을 넘으며 허리에는 大帶를 나비모양으로 매듭짓게 된다.<sup>93)</sup>

위와 같이 上下가 분리된 衣裳 외에 중국에는 上下가 연속된 深衣라는 복식이 있다. 深衣는 衣와 裳이 연속되어 있는 복식으로 白布로 만들었으며 용도는 매우 광범위하여 『禮記·玉藻』에 “朝玄端夕深衣”라는 기록이 있어<sup>94)</sup> 아침에는 元端을 입고 저녁에는 深衣를 입어 심의가 朝服 다음가는 복식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심의는 士의 吉服이었으며 朝祭의 다음가는 복식이고 庶人의 길복은 오로지 심의 뿐이었다.<sup>95)</sup>

深衣는 제작 및 형태에 있어서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禮記·深衣』의 ‘옛날에는 심의에 제도가 있어서 規矩繩權衡에 응했다. 짧아도 살이 보이지 않게 하고 길어도 땅에 닿지 않게 하며 여밈이 이어져 가에 닿고 허리는 裳의 반으로 한다. 소매는 팔꿈치를 움직일 만큼 한다<sup>96)</sup>’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87) 『毛詩正義』 鄭風 緇衣, p.160 “緇黑色 卿士 廳朝之正服也”

88) 손경자역, 『중국복식 5000년 上』, 경춘사, 1995, p.24.

89) “東方未明 顛倒衣裳 顛之倒之 白公召之”

90) 『毛詩正義』 檜風 素冠, p.262 “素冠練冠也”

91) 『시경집전』 上, p.307 “縹冠素紕 既祥之冠也 黑經白緯曰縹 緣邊曰紕”

92) 『毛詩正義』 檜風 素冠, p.262

“素冠故素衣兮 箋云 除成喪者 其祭也 朝服縹冠 朝服 緇衣素裳 然則 此言 素衣者謂素裳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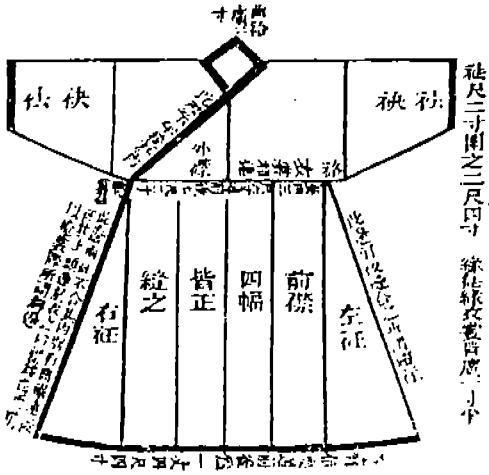
93) 『中國歷代服飾』, 앞책, pp.10-11.

94) 李民樹 譯解, 『예기』, 혜원출판사, p.343

95) 周錫保, 앞책, p.49

96) 『예기』, 앞책, p.661

“古者深衣蓋有制度 以應規矩 繩權衡 短毋見膚 長毋被土 續衽鉤邊 要縫半下 袼之高下可以逆肘”



(그림 9) 深衣  
中國古代服飾研究, p.90

青青子衿 悠悠我心 <國風 鄭風 子衿>

위 시의 青青子衿은 푸른 옷깃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毛詩正義』에 “青衿은 푸른색 것이며 학자가 입는 복식이다<sup>97)</sup>”라고 있어 士가 吉服으로 착용하던 복식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禮記·深衣篇』에 “부모님이 다 계시면 옷깃을 과란천으로 단다<sup>98)</sup>”라는 기록이 있어 이 시가 衿衿을 단 深衣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심의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상에서 중국복식의 기본형제라고 할 수 있는 衣裳이 묘사되어 있는 시경 속의 복식자료를 살펴 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衣裳은 크게 衣와 裳이 분리된 형제와 衣와 裳이 연결된 深衣制가 있으며 시경에 묘사된 衣裳의 대부분이 衣와 裳이 분리된 복식에 속하는데, 『毛詩正義』와 『禮記·深衣篇』의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1편의 시에 묘사된 衣裳을 深衣로 추론해 보았다. 그러나 이는 근거자

료가 부족하여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5. 袍·澤·甲

(1) 袍·澤

豈曰無衣 與子同袍 / 豈曰無衣 與子同澤

<國風 秦風 無衣>

이 시에는 衣裳 외에 袍와 澤이 묘사되어 있다. 袍는 衣裳의 위에 착용하는 長衣로서, 이에 대해 『毛詩正義』에 “袍는 햇숨을 든 것이다<sup>99)</sup>”라 있고 澤에 대해서는 『시경집전』에 “澤은 속옷이다. 피부에 닿아 때와 기름을 가까이 한다<sup>100)</sup>”라고 하여 袍가 숨을 든 옷이고 澤은 속옷임을 알 수 있다. 袍는 당시 禮衣가 아니라 일종의 내의였다. 또한 袍 중 짧은 것을 襦라 하고 속옷으로 착용했으며 거칠고 추한 것은 褐이라 하였다. 또한 속옷인 澤은 裌이라고도 한다.<sup>101)</sup>

(2) 甲(軍服)

군복이 묘사된 시는 모두 2편이다.

王于興師 修我甲兵

<國風 秦風 無衣>

公徒三萬 具朱朱綬

<魯頌 閟宮>

甲은 戎服을 말하는 것으로 甲兵이라 함은 군복을 입은 군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고대의 戰甲에는 犀나 牛, 鯨魚 등의 괴혁제가 많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 장식하였다. 이후 商周시대가 되면 皮甲 외에 練甲, 鐵甲이 등장하게 된다. 練甲은 이른 시기에 등장하였는데 紕帛의 두꺼운 것으로 만든 것으로 布甲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철갑은 전

97) 『毛詩正義』 鄭風 子衿, p.178 “青衿 青領也 學子之所服”

98) 『예기』, 앞쪽, p.663, “具父母純以青”

99) 『毛詩正義』 秦風 無衣, p.243 “袍 襦也”

100) 『시경집전』 上, p.285 “澤 裏衣也 以其親膚 近於垢澤”

101) 周錫保, 앞쪽, p.51.

국시대 중기 무렵에 가서야 등장하게 된다.<sup>102)</sup> 또 貝冑朱綬은 『시경집전』에 “貝冑은 조개로 장식한 투구이다. 朱色 끈은 투구를 묶는 것이다<sup>103)</sup>”라고 하여 붉은색 끈으로 장식된 투구를 묘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6. 기 타

본 장에서는 시경에 묘사된 남자복식 중 위에서 살펴보지 않은 頭飾과 佩飾, 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頭飾

여기서는 남자 頭飾 중 앞서 살펴 본 冕과 弁을 제외한 나머지 頭飾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葛屨五兩 冠綉雙止 <國風 齊風 南山>

婉兮變兮 總角卅兮 未幾見兮 突而弁兮

<國風 齊風 甫田>

髡彼兩髦 實維我儀 / 髡彼兩髦 實維我特

<國風 邶風 柏舟>

有頰者弁 實維伊何 <小雅 甫田之什 頰弁>

彼都人士 臺笠緇撮 <小雅 魚藻之什 都人士>

이처럼 시경에는 冠, 頰, 笠, 緇撮 등의 관모류와 總角, 髡, 髦의 머리모양이 묘사되어 있다. 冠은 중국 고대의 帝王이나 관리들이 착용한 禮帽의 총칭으로 그 모양은 冠의 양 옆에 있는 絲帶로서 턱 아래에서 묶어 고정시키는 것으로 남자는 20세가 되면 冠을 쓰고 성년이 되었음을 나타내었다.<sup>104)</sup> <齊風 南山>에 묘사된 冠綉雙止도 冠의 양 옆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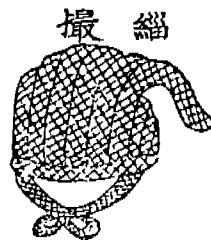
는 두 개의 끈을 묘사한 것<sup>105)</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鬢은 차양이 있는 삿갓 형태의 관이고 (그림 10), 頰와 緇撮은 “頰는 弁 모양이다<sup>106)</sup>”라고 있어 頰는 弁과 유사한 형태의 관모이고 “緇撮은 緇布冠이다<sup>107)</sup>”라고 하여 緇撮이 검은색 포로 만든 관으로 선비들이 착용하던 관모임을 알 수 있다(그림 11). 그런데 周錫保는 <<儀禮·喪服>>에 근거해 長沙에서 발견된 木俑이 쓰고 있는 것과 같이 喪服에 착용하는 首絲의 모양을 頰로 보고 있는데(그림 12) 앞서 弁모양으로 설명한 頰와 같은 모양을 설명한 것인지는 후후의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그림 10) 笠

原本詩傳, p.36



(그림 11) 緇撮

原本詩傳, p.36

102) 『中國歷代服飾』, 앞쪽, p.11

103) 『시경집전』 下, p.414 “貝冑 貝飾冑也 朱綬 所以綴也”

104) 『中國服飾大辭典』, p.16

105) 『毛詩正義』, p.195 “葛屨 服之屨者 冠綉 服之尊者”

『시경집전』 上, p.224 “綉冠 上飾也”

106) 『毛詩正義』 小雅 甫田之什 頰弁, p.482 “頰 弁貌 弁皮弁也”

107) 『시경집전』 下, p.171 “緇撮 緇布冠”



(그림 12) 類  
中國古代服飾史, p.69

남자의 머리모양에 대한 묘사로 먼저 “總角은 늘어진 다팔머리<sup>108)</sup>를 모은 것이다<sup>109)</sup>”, “뾰은 양 뿔의 모양이다<sup>110)</sup>”라고 하여 總角이 20세가 되어 冠을 쓰기 전에 머리를 두가닥으로 뿔아 올린 모양이며 뾰은 總角의 모양으로 쌍상투를 말함을 알 수 있다. 髥과 髥에 대해서 “髥은 兩髥의 모양이다. 髥는 머리카락이 눈썹에까지 이른다. 부모를 모실때의 꾸밈이다<sup>111)</sup>”, “髥은 머리가 드리워진 모양이다. 兩髥는 머리를 잘라 숨구멍의 좌우에 끼고 있는 것이니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꾸밈이다<sup>112)</sup>”라 하여 髥과 髥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 자식의 머리 모양임을 말하고 있다.

108) 다팔머리는 아이의 눈썹까지 늘어진 앞머리를 말한다.

『漢韓大字典』, 민중서림, 1995, p.1389 참조.

109) 『毛詩正義』齊風 甫田, p.197 “總角聚兩髥也 弁 冠也”

110) 『시경집전』上, p.226 “卬 兩角貌”

111) 『毛詩正義』髥風 柏舟, p.108 “髥 兩髥之貌 髥者 髮至眉子 事父母之飾儀匹也”

112) 『시경집전』上, p.118 “髥 髮垂貌 兩髥者 翦髮夾凶 子事父母之飾 親死然後去之”

113) 『시경집전』上, p.156 “髥 髥也 以象骨爲之 所以解結 成人之佩 非童子之飾也”

114) 『시경집전』上, p.157 “髥 決也 以象骨爲之 著右手大指 所以鉤弦 閱體... 以朱韋爲之”

115) 『시경집전』上, p.236 “掙 所以摘髮 用象爲之 貴者之飾也”

116) 여기서 履는 신의 총칭으로서의 履를 말한다.

## (2) 佩飾

시경에서 佩飾이 묘사된 시는 모두 2편이다.

芄蘭之支 童子佩觿, 雖則佩觿 能不我知  
容兮遂兮 垂帶悸兮 / 芄蘭之葉 童子佩韘  
雖則佩韘 能不我甲 容兮遂兮 垂帶悸兮

〈國風 衛風 芄蘭〉

佩其象掙

〈國風 魏風 葛屨〉

佩飾은 장식적인 목적으로 착용하는 佩玉과 달리 장식미에 실용성을 가미한 것으로 佩飾에 사용되는 것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시경에는 觿와 韘, 掙가 묘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경집전』에는 ‘觿는 송곳이니 象骨로 만든다. 땃힌 것을 푸는 것이니 성인이 차는 것이요, 童子の 꾸밈이 아니다<sup>113)</sup>’, ‘韘은 각지이니 象骨로 만든다. 오른손의 엄지 손가락에 끼우니 활시위를 당겨 활의 몸통을 여는 것이다... 붉은 가죽으로 만든다<sup>114)</sup>’, “掙는 가리마를 타는 것이니 象牙로 만든 것은 귀한 자의 꾸밈이다<sup>115)</sup>”라 있어, 觿는 상아나 뼈로 만든 송곳이고 韘 역시 상아나 뼈로 만든 각지이며 掙는 가리마를 타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佩飾은 佩玉과 달리 실제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들을 허리에 매달아 장식한 것으로 후대 유행하는 蹠鞬帶의 전신이 아닐까 생각된다.

## (3) 履<sup>116)</sup>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 남자의 履에는 烏과 葛屨가 있다. 烏은 이미 면복의 장에서 취급하였으므로

로 여기서는 屨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糾糾葛屨 可以履霜

〈國風 魏風 葛屨·小雅 谷風之什 大東〉

葛屨五兩

〈國風 齊風 南山〉

屨는 밑이 홀이 된 것으로 일종의 편리한 신인데, 시경에서 葛屨라 묘사한 것은 屨의 재료가 葛이기 때문이다. 屨는 대개 麻, 葛 등의 재료로 만들고 얇은 바닥을 많이 사용하며 관리들이 평상적으로 집에 거할 때 신는 신이며, 素屨는 장식이 없는 구이고 여름에는 葛, 겨울에는 皮로 만든다고 한다.<sup>117)·118)</sup>

## V. 맺는말

본 연구는 중국 西周 초의 대표적 경전 중의 하나인 詩經을 대상으로 하여 그 안의 복식자료를 발췌·분류하였고 이를 다시 詩經의 역대 해설서에 의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경에 묘사되어 있는 남자복식은 裘, 冕服, 弁服, 衣裳, 袍·澤·甲(軍服) 그리고 기타로 분류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裘를 언급한 시는 모두 11편으로 羔裘, 狐裘, 雋衣, 狸裘, 熊羆裘가 묘사되어 있다. 당시 裘는 계급에 따라 재질과 색에 차이가 있었으며 착용방법은 모피의 털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입었고 裼衣라는 것이 있어 裘의 색과 같은 옷을 裼 위에 착용하여 털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또 裘에는 소매에 다른 가죽을 대거나 색실로 장식하는 등의 수식을 가하였다.

2. 면복과 관련해서는 20편의 시가 분류되었고 章紋을 베풀은 玄衣纁裳에 대한 묘사 외에 中單, 佩玉, 充耳, 烏, 圭, 芻에 대한 묘사가 있었으며 이

들은 계급에 따라 문양의 수나 재질, 색 등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殷나라의 冕冠에 해당하는 芻라는 관모와 芻 밑에 착용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行膝에 해당하는 邪幅에 대한 묘사가 있어 주의를 끌었다.

3. 弁服으로 분류된 笠구는 모두 5편으로 이 중 2편이 皮弁服, 2편이 韋弁服, 1편이 簡弁服에 대한 것이었다.

4. 衣裳은 중국복식의 기본형태로 9편의 시에서 묘사되고 있는데 5편의 시에서 평상복으로 착용하던 衣裳을 묘사하고 있고 3편의 시에서는 관복으로 착용된 衣裳을, 1편의 시에서는 上下가 분리된 衣裳과 달리 上下가 연결된 복식인 深衣로 추정되는 衣裳이 묘사되어 있었다.

5. 袍와 澤을 묘사한 시는 1편으로 袍는 안에 솜을 둔 상하가 연속된 長衣이고 澤은 속옷이다. 군복과 관련해서는 甲과 冑가 모두 2편에서 묘사되어 있었다.

6. 이상의 복식 외에 시경에는 頭飾과 佩飾, 屨에 대한 묘사도 있었는데 먼저 패식은 모두 2편에서 묘사되었는데 송곳, 깎지, 족집게와 같은 것을 메달아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한 것이었다. 또한 頭飾은 크게 관모와 머리모양으로 나뉘었는데 남자관모로는 앞서 살펴본 冕, 弁, 弁 외에 頰, 冠, 笠, 緇撮이 있었고 머리모양은 總角, 髡, 髡에 대한 묘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자의 屨에는 앞서 살펴 본 屨에 屨가 2편의 시에서 묘사되어 있었는데, 屨는 평상시 집에 거할 때 착용하는 신으로 시경에는 葛로 만든 屨가 묘사되어 있었다.

이상의 『詩經』에 묘사된 남자복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周代와 春秋時代에 걸친 중국 복식 생활의 일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들 복식들과 출토 복식자료를 비교하여 각 복식들의 구체적인 형태와 착용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117) 『시경집전』上, p.235 “夏葛屨 冬皮屨”

118) 周錫保, 앞책, pp.52-53



## 참고문헌

- 1) 김학주 역저, 『시경』, 명문당, 1993
- 2) 성백효 역주, 『시경집전』, 전통문화연구회, 1993
- 3) 손경자 역, 『중국복식 5000년 上』, 경춘사, 1995
- 4) 이민수 역해, 『예기』, 혜원출판사
- 5) 정복남, “중국복식에서 예 관한 연구”, 복식 21호
- 6) 金啓華 譯注, 『詩經全譯』, 中華書局香港分局, 1986
- 7) 『毛詩正義』, 上海古籍出版社, 1990
- 8) 杉本正年, 『カラスライト 東洋服飾史』
- 9) 上海市 戲曲學校 中國服飾史 研究組 編著, 『中國歷代服飾』, 學林出版社, 1983
- 10)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商務印書館, 1981
- 11) 『原本詩傳』 上, 朝鮮圖書株式會社
- 12)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中國喜劇出版社, 1986
- 13) 『中國服飾大辭典』, 山西人民出版社, 1992
- 14) Zhou Xun · Gao Chunming, 『5000 Years of Chinese Costumes』, China Books & Periodicals, Inc., 1984

## ABSTRACT

A Study of Clothing Recorded in  
『Shin Ching(詩經)』 ( I )

— About the men's Costume —

This paper is a study of clothing recorded in 『Shin Ching(詩經)』. 『Shin Ching(詩經)』 is the oldest poetry, which written in early west-Zhou to mid Spring and Autumn Period. In this book, clothing is classified with men's, women's and fabrics. But only the men's cos-

tume is included in this paper, and the others will be studied later.

As a result, men's clothing includes Qui(裘), Mian Fu(冕服), Bian Fu(弁服), Yi Shang(衣裳), Po(袍), Ze(澤), the armour, the belt ornaments, the hair ornaments and the hair styles, the shoes.

1. Qui(裘) is depicted at 11 poetries. Its materials are sheep, wolf, bear etc. The materials and color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lass.

2. Mian Fu(冕服) is depicted at 20 poetries. There are depictions about the embroidered black garment and a red skirt, and also about inner blouse, Chong er(充耳), Chi xi(赤舄) etc.,

3. Bian Fu(弁服) is depicted at 5 poetries and there are three types.

4. Yi Shang(衣裳) is depicted at 9 poetries and classified with two types. One is two piece style, and the other is one piece style.

5. Po(袍) and Ze(澤) is depicted at 1 poetry. Po is a long coat with lining and Ze is a underwear. The armour and the helmet are depicted at 2 poetries.

6. The belt ornaments are classified with two styles. One is decorative and the other is practical. At 7 poetries they are depicted.

7. The hair ornaments includes a hat and a hair style. Also, the shoes are depicted and there are two styles.

Such a results can clarify the men's costumes of Zhou(周) and may be a raw datas about the costumes of old China.